

부문별 주요 기사

7월 1일~7월 31일

대내경제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7월 1일~7월 31일

대내경제 113

<공식경제>

북한, 현금카드 발급 의무화

북한 내 화폐 유통

<농업 및 식량>

북한 주요 농경지 가뭄 피해 심각

북한 지속되는 식량난으로 배급량 감소

<주민통제>

北당국, 휴대전화 검열 강화

대외경제 115

<대북제재>

강경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북중관계>

큰 변화 없는 북중교역액

<북러관계>

러시아와의 교역증가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공식경제>

RFA(7.10), RFA(7.17), RFA(7.19), 데일리NK(7.20)

북한, 현금카드 발급 의무화

북한 당국이 평양시를 시작으로 각 도 소재지에 있는 기관기업소 종업원들에게 현금카드 발급을 의무화 한다는 보도임. 한 소식통에 따르면 8월부터 기관기업소 종업원들의 월급을 현금카드에 입금 시키는 방식으로 지급 할 것이라고 전함. 지금까지 조선중앙은행이 발급하는 현금카드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었지만 현재 일반 주민들도 현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함. 현금카드는 도 소재지들에 있는 원유공급소, 샘플판매소, 가스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도의 중앙은행 분점과 도 체신관리국(우체국)에 설치된 기계를 이용하여 카드로 현금을 찾을 수 있다고 함. 북한 당국은 앞으로 열차표, 백화점, 도서관, 영화관, 약국들도 현금카드만 쓰도록 기계들을 설치해 주민들의 현금카드 소유를 장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내 화폐 유통

북한 주민들 사이에 미 달러 중 손상은 없으나 오래된 구권들은 서로 받지 않으려는 반면, 중국 인민폐의 경우 헤어지거나 낡은 지폐라 하더라도 별 문제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임. 이는 인민폐의 경우 중국은행에 가져가면 위폐여부만 확인하고 신권으로 교체 해주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함.

북한의 내화(북한돈)는 화폐개혁 이후 줄곧 북한 안팎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13년경부터 1대 8,000원선에서 암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시환율(1대 100원)보다 시장 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북한 돈이 종잇장처럼 취급 받는다는 보도임.

<농업 및 식량>

VOA(7.4, 7.12, 7.21, 7.25, 7.26), RFA(7.4), 연합뉴스(7.17)

북한 주요 농경지 가뭄 피해 심각

북한은 올해 2001년 이래 가장 심한 가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

국 OCHA는 7월3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자료에서 올해 1월 이래 북한 내 강수량이 평년보다 30~80% 가량 감소하여 북한의 주요 농경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북도, 함경남도의 농경지가 가뭄 피해를 입었다고 밝힘. 또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농업 세계정보 조기경보 체계 보고서’에 따르면 쌀, 옥수수, 감자, 콩 등 주요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밀과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감소했다고 밝힘. 이모작 작물이 전체 곡물 수확량의 10%에 불과하지만 5월부터 가을 추수 전 춘궁기 동안 북한 주민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북한 지속되는 식량난으로 배급량 감소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세계정보·조기경보(GIEWS)북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함. 그러나 2016/2017 양곡연도 곡물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최근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식량안보평가2017’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당국의 식량부족으로 식량 배급량을 300g으로 줄이면서 북 주민 50% 이상이 끼니를 걱정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전해짐. 이는 유엔의 1인당 최소 권장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규모로 본래 북한 당국의 목표 배급량인 573g의 식량배급량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북한 주민의 70%가 북한 당국의 배급에 의존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외부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부족분이 45만 8천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최근 대북제재와 가뭄 피해 등으로 식량 확보가 난망하며, 지난 2013년 7월 390g, 2014년 7월 400g, 2015년 250g~310g으로 배급량을 조절했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식량 배급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임. 이처럼 지속되는 식량난에 북한이 아시아에서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등과 더불어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로 평가되는 불명예를 얻음.

<주민통제>

RFA(7.4), 데일리NK(7.20)

北당국, 휴대전화 검열 강화

‘자본주의 사상문화의 전쟁’을 선포한 북한 당국이 그 첫 조치로 북한 주민들의 휴대전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임. 검열은 아침 출근 시 군 체신(우편)소에 휴대전화를 맡기고 저녁 퇴근 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휴대폰 내 불법영상물 제한프로그램 삭제 여부나 불법영상물을 본 증거에 대해 처벌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소식통은 전함. 또한 인력을 통한 주민 감시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검열 또한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대외경제

<대북제재>

VOA(7.6), 조선일보(7.8), 동아일보(7.11, 7.19), 한국경제(7.11), 한국일보(7.18), RFA(7.19), 헤럴드경제(7.24, 7.26)

강경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7월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규정되며, 북한은 핵개발에 새로운 분기를 맞게 됨. 역내 국가들에 대한 위협이 한 단계 높아지면서 모든 나라가 동참한 보다 강경한 대북제재에 대한 요구가 생겨남. 새로운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내용으로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제한, 항공 및 해상교통 규제 증설 등이 거론되고 있음. 특히 원유 수출 제한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로 큰 파급효과를 가진 조치이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함. 한미일 3국 정상은 G20 정상회의 중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을 고수하며 대결 구도를 형성함.

국가 간 이견으로 유엔 제재안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안 마련에 속력을 내며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연달아 통과시킴. 특히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임. 북한의 무력 도발과 인권 탄압에 관계된 모든 기업을 제재한다는 내용의 ‘북한 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면서 중국 기업 10곳의 실명을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원해온 중국 업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함. 북한·러시아·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도 통과시켰고,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북한과 거래했다고 알려진 싱가포르,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들을 잇달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행보를 보임.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유엔 결의안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제재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

대북제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3.9%로 발표했으며, 채광업과 에너지 사업 부분의 상승에 힘입어 수출도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국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제 3국을 거치는 ‘화물 세탁’ 방법으로 일본산 약기, 스위스산 시계 등의 고가 사치품이 수입되어 평양 상점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제재로 인한 외화부족을 해결하고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동향도 관찰됨.

〈북중관계〉

VOA(7.6), 동아일보(7.12, 7.17), RFA(7.18)

큰 변화 없는 북중교역액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 중국 수출은 줄어들었으나, 대중 수입이 증가하여 양국 간 교역액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북한의 제일 수출품인 석탄은 올해부터 대북 결의에 의해 수출 상한선이 설정되어 지난해에 비해 수출액이 45% 감소했고, 2위 수출품인 의류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23.5% 감소한 반면 철광석 수출액은 47.9% 증가했음. 대중 월간 수입액은 금수 조치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세부 교역품목을 살펴보면 휴대폰, 가전제품, 승용차 등 기본적 의식주 이외의 상품들의 증가세가 뚜렷하여 북한의 구매력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북한의 ICBM 발사 이후에도 중국은 여전히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한미양국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ICBM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석유수출 금지를 포함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북중관계에도 일정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은 나선경제특구를 오가는 중국 소상공인들에게 5월부터 국경통과세 등 추가 요금을 징수하여 경제특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 당국은 통관절차를 강화하여 신의주와 단둥, 리진과 훈춘간의 물동량이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짐.

<북러관계>

조선일보(7.25), 이데일리(7.31), 국민일보(7.31)

러시아와의 교역 증가

KOTRA의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의 2017년 1~5월까지 대북 수출액은 4,799만 5,000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보다 약 2배 증가한 액수임.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의 90.5%는 광물연료와 석유이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피해가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존재함. 러시아는 북한의 우방국으로 분류되며, 중국과 더불어 대북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대북제재 실효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도됨. 한편, 미국 의회가 27일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대하며 양국의 외교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또한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 및 동남아의 러시아 무역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는 보도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VOA(7.4, 7.15), 뉴데일리(7.18),

아래 표는 7월 한 달 간 국내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국가명 (단체)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유엔인구기금 (UNFPA)	2017~21년 (5개년 계획)	지원금	1,150만달러	성과 생식보건 분야지원 - 가임기여성에 생식보건 정보 제공 - 가족계획 용품 지원 인구동태 파악 - 통계기관, 인구주택조사기 관의 역량 강화활동 지원
러시아 정부 (WFP 경유)	2017년 7월	밀가루	5,000톤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조사 제 조에 사용될 예정
말레이시아 (Mercy Malaysia)	2017년 7월	구급차	여러대(미정)	함격북도 지역 병원과 의료기 관에 구급차 지원할 예정

기사 원문 리스트

- [2017.7.04] 말레이시아 NGO, 함경북도 의료시설에 구급차 지원 (VOA)
- [2017.7.04] 북, 강도 높은 휴대전화 검열 (RFA)
- [2017.7.04] 유엔 “북 주요 농경지 가뭄 피해 확산” (RFA)
- [2017.7.04] 유엔, 북한 가뭄으로 일부 작물 수확량 30~50% 감소 (VOA)
- [2017.7.05] 북한 주민 김일성 초상화 그려진 5천원 구권 외면, 왜? (데일리NK)
- [2017.7.06]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미국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마련”(VOA)
- [2017.7.06] 올해 북-중 교역액 20억 달러...지난해 수준(VOA)
- [2017.7.08] 韓美日정상 사상 첫 공동성명...北中俄와 선명한 대결구도 (조선일보)
- [2017.7.10] “북한 내화? 장마당에서 잘 안받아요” (RFA)
- [2017.7.11] 강경화 “세컨더리 보이콧 美와 협의중”...중에 원유차단 압박 (동아일보)
- [2017.7.11] 中, 북한산 석탄 禁輸에도 北 자금줄 압박 효과 미미 (한국경제)
- [2017.7.12] 유엔 “북한 가뭄 피해 황해도 집중...일부 재배면적 60% 피해” (VOA)
- [2017.7.12] 나선특구서 ‘왕서방은 봉’...통과세 등 추가요금 징수 (RFA)
- [2017.7.12] “북중 접경지역에 고압전류...탈북·밀수 거의 불가능” (동아일보)
- [2017.7.15] 유엔인구기금, 대북지원 5개년 계획 마련...1천만달러 투입 (VOA)
- [2017.7.17] 美, 北 제재법에 중기업 10곳 실명 꼭 찍어 공개 (조선일보)
- [2017.7.17] 北에 퍼진 중국산 휴대폰 체재 흔드는 ‘뇌관’될까 (동아일보)
- [2017.7.17] 북 내부에서 달러지폐 구권은 사용 못해 (RFA)
- [2017.7.17] 美 농부무 산하 연구소 “北 주민 50% 이상 식량 걱정” (연합뉴스)
- [2017.7.18] 美는 강경 대북제재 고삐 ... 동남아서 김정은 정권 돈줄 끊기 나서 (한국일보)
- [2017.7.18] 미 하원, 북과 연계 중국기업 미 공공사업 참여금지 추진 (RFA)
- [2017.7.18] 중 대북 무역업자들 통관검사에 불만 (RFA)
- [2017.7.18] 러시아 “北에 밀가루 5,000톤 지원 예정” (뉴데일리)
- [2017.7.19] 북, 주민들에 현금카드 발급 의무화 (RFA)
- [2017.7.19] 외국업체들 “北서 우리제품 유통, 깜짝 놀랐다” (동아일보)
- [2017.7.19] 북 중국 국제박람회 잇따라 참가...고립탈피.외화벌이용 (RFA)
- [2017.7.20] 北북당국, 휴대전화 검열 강화해도 주민 의식 변화 못 막아 (데일리NK)
- [2017.7.21] FAO “북한 가뭄 2001년 이래 최악...이모작 30% 감소” (VOA)
- [2017.7.24] 로이터 “지난해 北 경제 17년만 가장 빨리 성장...제재 무색” (헤럴드경제)
- [2017.7.25] 올해 원유수출 2배...푸틴, 김정은 후원자로 나섰다 (조선일보)

- [2017.7.25] 유엔 “북한, 최근 식량배급 300g으로 줄여...권장량 절반” (VOA)
- [2017.7.26] FAO “북한 2017 양곡연도 곡물생산량 전년대비 10% 증가” (VOA)
- [2017.7.26] 유엔·美, 강력 대북제재안 도입 ‘가속’ (헤럴드경제)
- [2017.7.31] 중·러 미온적 태도에...北기고만장 (이데일리)
- [2017.7.31] 러시아, 미국 제재 강화에 맞불...미국은 대북 제재 관련 대러 제재까지 (국민일보)
- [2017.7.31] 러시아, 대북지원 밀가루 800t 청진항 도착 (VOA)